하늘흐름을 내 안으로 유치하자

(역대하 19:1~11)

4.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5.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6.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7.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늘흐름을 내 안으로 유치하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늘흐름을 내 안으로 유치하자'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백성들의 시정을 살피는 민간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국의 사법제도를 강화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재판할 것을 명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에서도 수도 예루살렘의 사법제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왜 갑자기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앞뒤의 맥락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앞부분에서는 북 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군사동맹을 맺어 길르앗 라못에서 벌어진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선봉장이었던 북 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 전투에서 죽고, 여호사밧 왕도 죽을 뻔한 고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 행하게 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민간순행을 하면서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전국의 사법체계를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기준으로 강화시켰던 것입니다. 뇌물을 먹어도 안 되고 그릇되게 재판을 해도 안 되고 내 뜻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대외정책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앗수르가 북쪽에서 흥왕하

여 세력을 확장시키자 그에 방비하기 위해서라도 북 왕국과의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동맹에는 민족의 통일이라는 당위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의 정략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고 요단강 동북편의 아람의 길르앗 라못을 정복함으로서 앗수르에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동맹군은 대패하고 여호사밧 왕은 겨우 목숨을 구하여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할 때에 마음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앞서 본 17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제사장 레위인과 방백들 중에 선생들을 백성들에게 파견하여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책은 곧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물입니다. 즉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문자를 해석하여 의미를 안다는 뜻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좋아져야 율법도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사밧 왕은 온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좋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10~11절에서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숫양 칠천칠백 마리와 숫염소 칠천칠백 마리를 드렸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은 여호사밧 왕이 대외정책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때였습니다. 오직 내치를 위해서 율법을 가리키는 것에 온 힘을 쏟을 때의 일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주변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대외적으로도 영토에 비하면 어울리지도 않을 위세를 떨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치가 안정적인 궤도에 돌아오자 여호사밧 왕의 관심은 대외정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남북관계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멀리 아람과 앗수르를 염두에 두면서 북 왕국 이스라엘과의 정략결혼을 통한 동맹을 맺어 대외정책을 해결하고 국가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뒤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며 여호사밧 왕은 다시 내치로 돌아섭니다. 율법에 준하여 재판을 함으로서 모든 백성들의 송사마다 하나님의 판단대로 되기를 바랐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세상의 삶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땅에서의 삶은 하늘의 힘이 흘러들어올 때에만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앗수르와 아람 그리고 아라비아, 주변국인 블레셋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하여 정책

을 세운다고 해서 그 정책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놓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흐름이 들어오게 되고, 그 흐름이 나를 중심으로 번져나갈 때에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며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경외로서 나라 안의 내치를 다지는데 힘을 기울였고, 나라가 강대해져서 주변나라들이 두려워하면서 조공을 바칠 때에는 분명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외적인 정세조차도 스스로 입안하고 수행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패 끝에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얻은 여호사밧 왕은 다시 내치에 힘을 기울이면서 모든 백성의 사건마다 하나님의 판단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어 나갑니다. 엄청난 비결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전적으로 하늘이 사시는 것이고 하늘의 흐름이 들어와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자녀가 있고 부모님도 계십니다. 이럴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 하늘로 올라갈 때에 내 마음의 빈자리는 통로가 됩니다. 하늘의 흐름이 그 통로를 타고 내려와서 사방으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대해 살겠다는 의지를 가질 때에 그 통로는 꽉 막히고 하나님의 뜻은 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으실 것이고, 나를 통로로 해서 퍼져나갈 내 가족들에 대한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이웃들과 사회에 대한 뜻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내가 통로가 되어서 나를 중심으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왕의 직무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진력했습니다. 그럴 때에 주변국과 멀리 떨어진 나라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 그들이 여호사밧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거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후두둑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서 주변을 둘러봐도 그런 소리가 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혹시 큰 쥐라도 들어왔나 싶어서 소름이 확 끼쳤는데 나중에 보니 소파 한쪽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천장 벽지가 물주머니처럼 되어서 축 늘어져있었습니다. 대야를 가져다 놓고 물주머니를 찢으니 고였던 물이 쏟아지고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위층에서 보일러가 터졌던 것입니다. 전문가가 와서 살펴보는데 구멍이 난 곳은 물이 고인 곳이 아니라 그 곳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한쪽 끝이었습니다. 정작 물이 새는 지점은 바싹 말라있고 엉뚱한 곳에 흘러 들어와서 고여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통로가 되어있지 않다면, 나를 통로로 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뜻 까지도 다 몰려오게 되고 구멍이 난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북 왕국이 앗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북 왕국이 바로 섰다면 하나님의 뜻이 북 왕국으로 내려와 앗수르에까지 미쳤을 텐데, 북 왕국이 돈과 부흥을 좋아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동안 하나님이 뜻이 내려오지 못하여 앗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걱정하게 하며 삶을 불행하게 할까요? 왜 배우자 때문에 웃을 수가 없을까요? 내가 통로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라도 통로가 되었다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흘러 들어와서 확장되었을 텐데, 하나님께 전념하기보다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전념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서 기쁨을 얻으려 하고 자식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대외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뜻은 흐르지 못하고 고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삶은 실패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대외정책의 확장은 정책을 세운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나가는 만큼 문제가 해결되고 땅의 삶도 진행된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내치에 힘을 쏟게 됩니다.
마치 재판장에 선악과를 세워둔 것과 같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모든 재판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라는 것이고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충만해지면 외세의 확장 또한 하늘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살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난관에 부딪힐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곧 땅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늘을 산다는 것은 하늘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때에 이 땅은 하늘의 힘으로 살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깨달음입니다.
우리 또한 여호사밧 왕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국내가 안정되자 외부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한 번 이루어진 안정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생물이다'는 말이 있듯이 믿음도 생물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안정된 궤도에 올라섰다고 여김으로 인해 그 마음을 외부에 빼앗기게 되었습니

다. 북 왕국 이스라엘의 동맹에 빼앗기고 아람과의 전쟁에 빼앗기고 앗수르의 염려에 대해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앗수르가 강하면 강할수록 여호사밧 왕이 할 일은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뿐입니다.
돈 문제나 건강 문제가 있습니까? 몸에 나타난 건강 문제조차도 마음 바깥에 있음으로 대외문제입니다. 자식들이나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중국 북한 일본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집중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중심점으로 하여 관계없는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흘러들어와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과한 하나님의 뜻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라비아에게 조공 받을 것을 기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에 두려움을 주심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오직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율법 교사를 파견하고 내치에 전념했을 뿐인데, 여호사밧을 통해 흘러간 하나님의 뜻이 아라비아에까지 이르러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심으로 인해 조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자꾸만 독도를 자기네들 땅이라고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긁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욱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독도와 일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려와서 우리를 중심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북 왕국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변국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실 것입니다. 일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이고 또한 독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국도 믿지 않고 사드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앞에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를 붙잡고 죽는 것뿐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일 때에, 나를 통로로 내려온 하나님의 뜻이 가정으로 사회로 나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힘이 남아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원래부터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적극적 표현이라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소극적 표현입니다. 곧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음으로서 이 땅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힘으로만 진행되고 확장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늘의 흐름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순간순간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뻥 뚫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